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데릴사위로 살고 있는 '나'는 아내가 될 '점순'의 키가 크면 혼인을 시켜준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3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지만, 장인은 혼인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담판을 지어 결혼을 허락받으라는 점순이의 성화에 자극을 받은 나는 관격*을 빙자하여 일을 안 하며 꾀를 부린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집으로 트림을 꿀꺽 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유, 아이구 배야!”

“기껏 밥 처먹구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 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오늘은 열 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향하게 가더니 지게막 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중략]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말 한마디 툭툭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정말로 바보로 알 게 아닌가.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널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한번은 장인님이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했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영금영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움키고 잡아뉘었다.

“아! 아! 이놈아! 놈아,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혈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꼼짝도 못 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관격 : 먹은 음식이 체하여 가슴 속이 막히고 위로는 계속 토하며 아래로는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위급한 증상.

*성례 : 혼인의 예식을 지냄.

*역성 :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

(나)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노동이었다.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

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 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답하고 친구 '채량'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한다. 돈을 구하기 위해 '지소'와 '채량'은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 '월리'를 몰래 훔친 후에 사례금 오백만 원만 받고 바로 돌려주기로 한다.

S# 75 레스토랑 마르셀 - 집무실, 낮

노부인 월리를 어디에서 봤니?

지소 (사이를 두고) 아, 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수영 (지소를 노려보며) 월리가 맞아?

지소 네, 확실해요.

노부인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월리는 집을 나간 거야.

지소 (급한 마음으로)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우리…….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소의 말에 굳은 표정이 풀리는 노부인의 얼굴.

노부인 아빠가 집을 나갔니?

지소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니,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월리도 그렇고요.

노부인 음? (자리에서 일어나 지소에게 다가오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지소 (당당히) 전단요. 개를 찾는다는 전단. (다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거기에 사례금도…….

노부인 사례금? (대충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래, 얼마면 되겠니?

지소 (갑자기 큰 소리로) 오……, 오백만 원이요.

노부인 (가만히 지소를 바라보다가 수영을 손짓으로 부르며) 들었지?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 줘.

S# 84 레스토랑 마르셀 - 홀과 집무실, 낮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노부인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 같아.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쳐다본다.

지소 윤서오? 혹시 이 사람이…….

노부인 내 아들이란다. 애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지소 그 개가……, 율리인가요?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지소(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채랑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지소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채랑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지소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우리는 율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채랑 오, 완벽한데? 좋았어!

S# 97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율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율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라) [앞부분의 줄거리] 아내는 겉보기엔 평범한 성격의 가정주부이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애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꿴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주의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 장자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감각과 마음을 통해 얻는 지식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과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옳고 그름, 귀함과 천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분별을 초월하여 자연 만물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갈통은 폭력의 의미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폭력에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대변되는 직접적 폭력과 법률과 제도에 의한 억압을 의미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기저의 문화적 폭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 서민들의 경우 조선 후기까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 민가에서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까지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사회에서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늘 조심하였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믿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에 우산 사용을 꺼려했다고 한다.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몰매를 맞은 일까지 있었을 정도다. 우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산된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다만 얼굴을 드러내 놓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쓰개치마*를 쓰고 등·하교하였다. 그런데 배화 학당에서 쓰개치마를 교칙으로 금한 일이 있었다. 학생들과 가족들은 얼굴을 내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이 때문에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파장이 컸다. 결국 배화 학당은 쓰개치마 대안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 있도록 검정 우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후 우산은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했고, 얼굴을 가리는 용도와 더불어 햇빛을 가리는 양산으로까지 확대되어 멋을 내는 도구가 되었다.

*쓰개치마 : 예전에,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내외(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함)를 하기 위하여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어 쓰던 치마.

(사)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이나 쓸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억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의견 양극화와 쓸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아) '루틴(routine)'이란 스포츠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루틴은 선수가 승리를 위해 최상의 조건으로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말이 아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라든지 "자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수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은 단순히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일종의 루틴인 것이다.

루틴은 '징크스(jinx)'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면도를 한 날 경기에서 패했다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선수에게는 징크스가 된다. 징크스는 자신이 경험한 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시합에서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

동이다. 이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나도 자전거를 배우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봤다. 뒤에서 아버지께서 잡아 주시고 내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굴리는 식이었는데, 운동 신경이 형편없었던 나는 계속 넘어 지곤 했다. 몇 번 넘어지는 그 순간만 넘어서면 다음부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넘어지는 순간의 두려움과 아픔이 겁나서 끝끝내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다.

한 번의 사업 실패는 아버지를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곧 다시 일어서셨다. 서울에서 홀로 실패의 아픔에 맞서 싸우셔야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실패는 두렵지만 이전에 겪었던 한 번의 실패가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 등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는 녹슨 자전거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다.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시던 그 모습.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다.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차) 선생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구체적이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목이 풀리기 전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두 옥타브씩 세 번만 불러라.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쯤 부르면 된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변성기 지나고 목소리가 정해지는 고등학교 3년 동안만 해도 누구한테나 좋은 인상을 주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같은 반에 학교 주변 폭력계의 실력자로 알려진,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단 한 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 성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싸움은 자신 있지만 싸움 실력으로는 체대에도 못 가니 예능 쪽으로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 년쯤 뒤인 2학년 봄 소풍을 갔을 때였다. 장기 자랑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나와서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나오더니 독일어로 된 가곡을 유창하게 불렀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대학에 가고 싶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시키는 대로 꾸준히 실천한다는 조건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음대에 진학할 수 있는 노래 실력을 갖추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 생애 마지막 음악 시간이 되어 버린 그 시간에 음악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가끔 곱씹고 있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말씀을 해 주었다.

“너희의 미래는 지금 너희가 되기를 열렬히,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모임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모임 참석자들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설명된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할 때 지녀야 할 자세를 제시문 (자)와 제시문 (차)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